

한국문화교류 소식

23호 2017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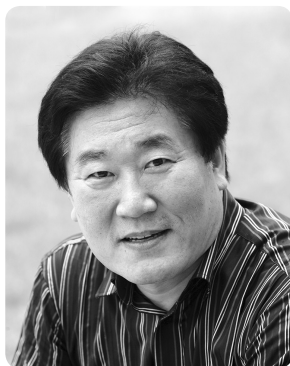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윤문원 작가

권력의 정상인 대통령과 금력(金力)의 상징인 재벌 회장이 겪는 엄청난 시련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서의 시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고통스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지요.

삶에 절대적인 안정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인생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시련은 예측 불허로 수시로 다가옵니다. 시련은 없고 행복만 있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시련과 행복이 교차하는 것이 삶이요 인생입니다.

시련은 잠재력을 일깨우고

감춰져 있던 재능을 발현시키며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채근담》에 “시련에 처했을 때는 두려운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यो, 약이 된다. 약이 몸에 쓰듯이 시련은 잠시 몸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참고 잘 다스린다면 많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스캇 펙(M. Scott Peck, 1936~2005)은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다(Life is difficult), 삶이란 문제의 연속인 것을 자각하라. 인생이 시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납하면, 오히려 시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을 통하여 시련이 주는 삶의 지혜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 매화나무가 어린 매화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너도 알 거다. 우리가 왜 겨울바람을 참고 견뎌야 했는지를. 우리 매화나무들은 살을 에는 겨울바람을 이겨내어야만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단다. 내가 만일 겨울을 견디지 못했다면 넌 향기 없는 꽃이 되고 말았을 거야.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 마찬가지로.”

겨울 추위가 심한 다음에 오는 봄의 푸른 잎은

한층 푸릅니다. 바람이 거세어도 머지않아 꽃은 피어나고, 살이 에이고 아파도 꽃향기는 깊어져 멀리 퍼집니다.

시련은 잠재력을 일깨우고 감춰져 있던 재능을 발현시키며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시련은 약한 것에 강하게 되고 두려운 것에 용감하게 맞서고 지혜로 혼란을 극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에 시련이 전혀 없다면 시련에 단련되지 못해 발전할 기회도 강해지는 기회도 변화할 기회도 줄어들 것입니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단련의 기회입니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단련으로 담금질하여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시련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련에 굴복하면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신세처럼 되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지요. 시련에 강해져야 하며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 감당치 못할 시련은 없다는 확신을 하고, 주저앉아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한다고 여기고 일어서야 합니다. 짓밟힘을 당해야 윤이 나는 자갈이 되는 것과 같이 시련을 통해 꿈이 더욱 분명하게 되고 실현하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시련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지

요. 시련은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담대하게 마주해야 할 기회로 생각하세요.

시련은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강인한 사람과 나약한 사람의 구분은 시련이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갖추고 행동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이미’와 ‘비록’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비관론자로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굴복하여 극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강인한 사람은 낙관론자로 ‘비록’ 일어나긴 했지만, 잠재력을 발휘하여 극복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련은 삶을 흔들면서 극복을 위한 영감을 떠오르게 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용기와 지혜와 잠재력

이 일깨워지고 재능을 발전시키지요. 시련을 없게 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으므로 불평, 불만, 변명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격렬하고 정신없는 놀이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시련을 감수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에 묘미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나를 더 크게 쓰려고, 쓰러뜨림이라는 일시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위안하십시오. 인생에서 시련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의지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듯이 어떠한 시련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련은 과거의 일이 될 뿐입니다. 인간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시련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귀중한 선물로 여깁시다.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박애재단(THF) 사업 본격화



강 석 재 ICRC 운영위원, 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조정원)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 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전 세계 난민촌과 고아원 그리고 자연재해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은 2016년 초 ‘월드태권도케어스프로그램’(World Taekwondo Cares Program, WTCP)을 신설하고, 4월에는 스위스 로잔(Lausanne)에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금 활동을 위한 단체인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THF)을 공식 출범시켰다.

본 프로그램 및 재단은 현재 요르단 아즈락(Azraq) 시리아 난민촌과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서 어린이를 위한 태권도 봉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및 지부티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드태권도케어스프로그램과 태권도박애재단

설립의 주요 목적은, 한국 및 현지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태권도 기술과 정신, 올림픽 정신과 세계 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적인 시민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과 재단의 또 다른 운영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체육 발전보다 난민, 고아, 자연재해 지역 피해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풀뿌리 체육의 발전에 두고 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에서 태권도박애재단 설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어서 연맹은 2015년 12월 1일 요르단 자타리(Zaatari) 및 아즈락 난민 캠프에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을 파견하고 공식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2016년 3월 유엔난민기구 (UNHCR)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네팔 지진 피해 지역 9곳에서 약 400명의 현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권도 무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연맹은 오는 2017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포카라에 소재한 7개 고아원에서 원생 최대 200명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칠 계획이다.

또한 연맹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요르단 아즈락 난민 캠프에 한국 태권도 사범 1명, 현지 사범 1명을 파견하여 남,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0명의 아이들이 수업의 혜택을 받았다.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수업에 참가 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은 아즈락 캠프에 자체 비용으로 태권도 전용 아카데미(도장) 건립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번 상반기 중 개관식이 열릴 예정이다.

요르단 아즈락 캠프 건립을 돕기 위해 중국의 화민자선기금회(Huamin Charity Foundation)가 지난해 태권도박애재단에 미화 총 60만 불을 지원하

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UAE 푸자이라 (Fujairah) 왕세자 또한 재단에 미화 10만 불 기부 약정을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인도주의적 사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맹은 2008년 태권도평화봉사단 (Taekwondo Peace Corps)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2009년 별도로 설립된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과 함께, 태권도와 올림픽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 태권도를 전공한 한국 대학생 1,300여 명을 100여 개 이상 국가에 파견해 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이러한 연맹의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여, 지난 11월 모나코에 본부를 둔 피스앤스포츠 (Peace and Sport)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올해의 국제 기구 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올림픽 스포츠로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확고히 한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 전 세계 208개 회원국, 8천만 명의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통한 세계 평화 증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요르단 아즈락 난민캠프에서 태권도 훈련 중인 어린이들

트로피와 트럭



김 태 진 전 맨해튼한국학교 교장, ICCK 연구위원

“Once, there was a little boy.
His father was a shepherd. One day...”

중1 때, 영어 교과서에 나온 이솝의 우화 ‘양치기 소년’의 첫 문구이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시 영어 선생님께서 암기하고 구연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과 달리, 중등 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영어에 대한 낯설음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재미있고 실용적으로 접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였던 것 같다. 지금도 이 문구를 되뇌일 때, 그 때의 감정과 역량이 그대로 재연되는 걸 보면 그 선생님은 언어 교육에 대한 소신과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었음을 느낀다. 언어에 정의적인 요소가 녹아들어갈 때 진정한 점유가 된다는 연구들을 상기해 보면 말이다. 어쨌든 문법과 독해 위주의, 오로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노동 같은 영

어 공부의 기억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감성적 추억을 남겨준 유일한 기억이다.

우리의 재외동포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많이 암기한다. 바로 한글학교 동화 구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여름방학 때는 가을학기에 있을 구연대회에 적합한 동화를 고르기 위해 고심한다. 내용도 재미있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동화를 골라야 아이들이 외우는 데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적인 교훈도 있어야 하니 적합한 동화를 고르는 일이 쉽지는 않다. 동화가 정해지면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추어 각색을 하고 학기 첫 주부터 암기하도록 숙제를 내 준다.

동화를 7-8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미리미리 외우도록 하지 않으면 동화 한 편을 다 외우는 것

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도 처음 한 두 번은 잘 외워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누적되니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나온다. 나는 동화대회를 학생 지도에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한국어 공부 싫어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학생을 집중 공략하여 완주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때의 필수 조력자는 학부모이다. 학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외우기 힘들어 하는 학생을 가정과 학교에서 양면 협동 작전으로 어르고 달래며 ‘우리 아이 동화대회 출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단 한 편을 다 외우고 그곳에 감정과 표현력을 더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변화는 상당하다. 자신감과 성취감 고취는 물론,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무엇보다 한국어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생기면서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배우고 사용하는 계기가 된다. 학교에서는 동화 한 편을 다 외운 것은 상을 줄 만하기에 본상 외에 노력상도 마련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트로피를 준다.

유치반 학생들도 짧은 동화를 잘 선택하여 일찍이 무대에 서는 경험을 한다. 혼자 무대에 서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발표하다 울어 버리는 아이 등 유치반 아이들과 얹힌 일화가 많다. 그 중 영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동화이자 교사에게 주는 메시지 또한 담고 있다.

4살짜리 영수의 동화 구연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맡았다. 아빠가 들려주는 ‘사자와 생쥐’를 처음에는 재미있게 듣고 곧잘 따라 외우다가 금방 싫증을 내고 장난감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찾기 일췌였다고 한다. 아빠가 동화를 들려주려고 하면 영수는 금방 알아차리고 도망가서 숨고, 다른 놀이를 하자며 조르기도 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생각난 것 하나,

“영수야, 동화대회에 나가면 ‘트로피’를 준대.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외워보자.”

그 말을 듣자 영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며,

“트럭? 동화대회에 나가면 정말 트럭 줘요?”

아이가 아버지의 ‘트로피’ 발음을 ‘트럭’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아버지는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응, 트럭 준대, 영수 트럭 받고 싶어?”

이후로 이 ‘트럭’은 영수가 동화를 끝까지 듣고, 한 줄 한 줄 외우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동화를 외울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영수는 동화 외우는 것을 포기할 뻔한 위기(?)를 넘기고 ‘사자와 생쥐’를 모두 외웠다.

드디어 동화대회 날, 영수는 트럭을 향한 일념으로 무사히 발표를 마치고 반짝이는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더불어 꿈에 그리던 ‘트럭’도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트로피랑 트럭 받았어요!~~~”

우리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현지어보다 한국어를 사용할 시간과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환경에서 한글학교뿐만 아니라 한인 공동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배운 한국어를 활용하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러할 때보다 높은 자긍심과 성취감을 가지고 한국어를 신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로피’보다 ‘트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우리들의 교육적 마인드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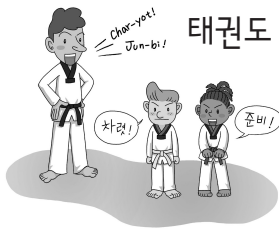
러시아·독립국가연합 학생들 ‘한국어 경시대회’… 우승자는 한국 유학 기회 제공

러시아 카잔연방대학교에서 12월 10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지역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8회 한국어경시대회가 개최됐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지역의 전통 있는 한국어 경시대회로 알려진 이번 대회에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국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그 동안 한국어 관련 대학,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에서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말하기 부문 수상자 2명에게는 한국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전남대학교는 고등학교부 말하기 1등 수상자에게 4년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김천대학교는 대학 부 말하기 수상자 1명에게 무료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위원장인 고영철 카잔연방대학교 교수는 대회가 진행 될수록 참가지역이 확대되고 참가학생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지역의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국어경연대회가 지역별로 많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_ 재외동포신문, 2016.12.12





태권도박애재단 첫 친선도시에 파리... 난민 지원 협력

프랑스 파리가 난민 지원 사업을 하는 태권도박애재단(THF)의 첫 번째 친선도시가 됐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31일(이하 한국 시간) “조정원 WTF 총재가 안 이달고 파리 시장과 난민 지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파리를 태권도박애재단의 첫 번째 친선도시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태권도박애재단은 파리지, 프랑스태권도협회와 함께 실의에 빠진 난민과 고아 등에게 태권도를 통해 삶의 의지를 북돋워 주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WTF는 파리시가 운영하는 인도주의 구호센터에서 30일부터 ‘태권도 디스커버리 워크숍’도 개설했다. WTF는 올해 르완다,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 아프리카 지역 난민 캠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_ 연합뉴스, 2017.01.31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6년 ICKC 송년회

2016년 12월 28일(수), 본회가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하는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어울사랑 송년음악회'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2016년 ICKC 송년회를 가졌다. 서울남산국악당의 정취도 만끽하는 한편, 실내악단 어울림의 공연과 함께 펼쳐지는 다채로운 한국 전통춤 감상하며 우리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공연 후 마련된 연회 자리에도 많은 회원분이 참석하여 서로 감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기원하며 자리를 마쳤다.



2016 후원하여 주신 분

2016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재근, 구병진, 구철희, 김건길, 김동현, 김명수,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응철, 김정수, 김정복,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종익, 김진원, 김호일, 도무희, 문영호, 박경명, 박관용, 박신재, 박용수, 박원철, 박의근, 배대환, 변상인, 서형숙, 성효동, 심재익, 위호인, 이대근,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정남, 이창걸, 이향구, 이한목, 장호익, 전영섭,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준영,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홍사중,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신한금융지주회사, (재)아시아발전재단, JEI 재능교육, (주)P&H

(가나다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총액 : 64,71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6 올해의 인물 시상식'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6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2월 1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본회 조남철 이사장을 비롯해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아울러 행사의 성공적 진행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일환에서 후원 또한 진행하였다. 재외동포신문이 창립년도부터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동포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해 그 뜻을 기리는 의미로 시상하는 상이다. 2016년 올해의 인물 부문별 수상자로는 ▲고상구 하노이 한인회장(한인회 부문) ▲정영수 CJ 글로벌경영 고문(한인경제 부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치·행정 부문) ▲손창현 나의꿈국제재단 이사장(교육 부문) ▲권태일 재외한인구조단 총괄단장(사회봉사 부문) ▲송효숙 WCN 대표(문화·예술 부문) ▲그레이스 상옥 김(특별상) 이 선정됐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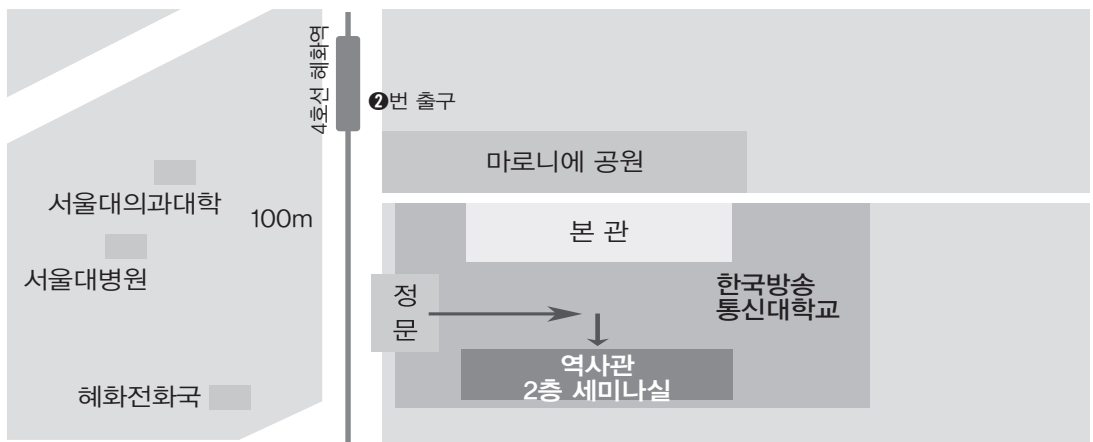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립 6주년 기념 포럼에 초대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창립 6주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기념 포럼을 개최합니다.
우리 문화에 살아 숨쉬는 배려 정신을 돌아보고
행복한 삶의 의미에 대해 의견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일 시_ 2017년 3월 30일(목) 14:00~17:00
- 장 소_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
- 프로그램_ [개회사 및 경과보고]
[포럼] 문화로 읽는 삶의 가치, 배려와 행복
• 기조강연 : “우리 사회의 갈 길을 찾아서 - 조선 초상화에서”
_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의학박사, 미술사학박사)
• 강 연 : “시에 나타난 배려의 정신”
_ 유자효 (前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시인)

◆ 찾아오시는 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송동)



-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100m 직진
(방송대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 2층입니다.)
- *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은 방송대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조 남 철 드림